

알렐루야 알렐뉴야 부활은 역전이고 반전이며 은총이다.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4월 20일 오후 8시 성전에서 파스카 성야 미사에 359명의 교우가 참여한 가운데 빛의 예식으로 부활초 축복과 행렬 교우들의 촛불 점화식 이어 제 1~7 독서까지 화답송과 복음 강론에서 주임 신부님께서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목숨 바친 영광이다. 즉 부활은 역전이며, 반전이고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물 축복과 세례 서약 갱신을 하신 다음 성수로 교우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셨다. 이어 성가대 지휘자 소프라노의 알렐루야, 알렐루야 환호송이 갑작스럽게 대박을 맞아 즐거워하며 함성 지르는 소리와 같아 교우들의 박수를 자아내었다.

죽음이긴 부활. 죄악 회개하는 부활. 믿음과 희망 부활.

서울대교구 시흥4동 본당은 4월 21일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에 40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축일 전례와 부활 달걀 축복을 하였다. 이날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복음 강론에서 부활의 의미를 3 개항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① 죽음의 극복: 죽음이 새 삶을 기약 됨. ②죄악 선별: 부활이 죄악에서 살아가면서 희망의 회개신앙. ③ 부활의 의미: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이란 말씀을 하셨다. 이어서 각 구역과 개인이 봉헌한 부활 달걀에 축복하였다.



전 신자가 개인보다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아래 구역개편 바람직



사목협의회는 4월 21일(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201호에서 주임 신부님과 류현숙(루시아)수녀님, 사목협의회 위원 함께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 기도와 복음 봉독 이후 서면 월례보고에 대한 협의 회의가 있었다. 기획·홍보분과는 서면으로 한마음 웃놀이 결산보고서 제출하게 된 것은 여러 분과에서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는 보고와 수석부회장의 구역개편 조사 설문지에 주임 신부님께서 '개편을 신중해야 하며 전 신자가 똑같이 고충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 구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여야 하므로 먼저 사목협의회 위원부터 개편에 찬, 반을 정한 후 남성 구역장과 여성 구역장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란 말씀과 이어 사목협의회는 찬성으로 의결하고 마침 기도와 축복으로 회의를 마쳤다.

